



우리나라 자생수종 5

소리딸나무



전 승 훈
경원대학교 도시조경학부 교수

- ▶ 과명 : 층층나무과 (Cornaceae)
- ▶ 학명 : *Cornus kousa* Buerger
- ▶ 영명 : Kousa Dogwood,
Japanese Dogwood
- ▶ 한명 : 四照花, 靑皮樹
- ▶ 기타 : 소리딸나무, 미영꽃나무

□ 분포 및 생태

• 자생적 분포범위(native range)

중국과 일본 및 한국에 주로 분포하는 동아시아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주로 중부이남지역의 해발 500-700m이하 산지에 자생한다.

• 생육가능범위(useful range)

온대 남부수종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이남의 각처에서 잘 자라나 북부지방이나 추운지방에서의 생육은 가능하지 않다. 수직적으로는 해발 1,000m이하의 생육범위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나 고도가 높을 수록 성장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 생태(ecological characteristics)

온대남부의 대표수종으로 비교적 온난다습한 환경을 선호



▲ 미국산딸나무 - 핑크색 포편

하며, 새들에 의한 종산분산기구를 통해 분포영역을 확장한다. 양수 또는 중수성 수종으로 햇빛이 풍부하고, 습윤하며 부식질이 풍부한 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나 내음성도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숲내와 숲가장자리 또는 개방지 등에 모두 자생한다.

□ 크기와 습성

낙엽활엽소교목으로써 다자라면 수고 약 6-10m, 흉고직경 약 50cm에 달하는 아담한 수형을 형성한다. 하지만, 자생지에서 큰 나무를 보기는 쉽지 않고, 대개 수고 4-5m, 흉고직경 10cm미만의 개체가 대부분이다. 초기생장은 빠른 편이나 비교적 생장이 느린 수종으로 주 줄기는 곧추자라거나 약간 비스듬히 자라는 습성을 보이며, 옆가지는 대개 수평적으로 벌어져 개방수관을 형성한다.

□ 입지적합성

양수 또는 중성수로써 내음성도 상당히

때문에 개방된 도시환경에서 적합도가 매우 높다. 또한, 비교적 온난습윤기후를 선호하나 척박건조환경에 대한 내성도 강한 편이다. 배수가 잘되는 양토 또는 사질양토에 잘 자라며 내한성과 내공해성, 내염성도 우수한 편이다. 또한, 내습성도 어느정도 있기때문에 연못 등 물가주변에서도 성장도 양호한 편이다. 천근성 수종으로 내풍성은 비교적 약한편이고, 습윤한 약산성 토양을 선호한다.



▲ 미국산딸나무의 수형 - 붉은색 포가 수관을 수놓음



▲ 산딸나무 - 흰색의 포편이 큰 품종

을 가득 덮고있는 모습은 마치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앉은 듯한 장관을 이룬다. 또한, 9월에 들어서 붉게 익는 핵과도 특징적이고, 특히 가을철의 붉은색과 노랑색이 섞이는 단풍잎도 자랑거리다.

□ 식재기능 및 기법

산딸나무의 조경학적인 매력은



▲ 산딸나무의 잎과 포



▲ 산딸나무의 품종(잎의 변형)

□ 계절적 효과

신록이 짙어갈수록 아름다운 꽃도 여간해서는 돋보이지 않고, 여름날의 무더위에 사람들은 그늘을 더욱 그리워하게 된다. 그래도 초여름의 문턱에서 무성한 잎사귀를 뚫고 그 자태를 뽐내는 나무가운데 산딸나무가 있다. 꽃잎처럼 보이는 백색의 커다란 포편이 수관

무엇보다도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꽃잎같은 포편이 오래도록 나무전체를 수놓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정이나 건물전면 또는 경사지나 마운드리역에 침엽수나 상록수를 배경으로 군식하거나 단목으로도 빼어난 표본기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딸나무는 수형이 비교적 단정하여 가로수나 경계식재용으로도 우수



▲ 만개된 포에 덮인 산딸나무의 수형

□ 관련 종

유사종으로 핑크색 포편을 갖는 미국산딸나무나 백색의 포편을 더욱 크게 만든 품종, 연노랑색의 잎을 갖는 품종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본 동경의 황거 공원이나 시내 가로수로 식재된 미국산딸나무는 벚나무의 화려함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돋보이는 식재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 산딸나무의 일반적인 수형(품종)

한 소재이며, 악센트식재에도 적합하다. 생태적으로는 야생조류를 유치하거나 숲가장 자리의 주연부 식재로도 적합하다.

□ 유지관리

비교적 유지관리노력이 적게드는 수종이나 약간의 바람막이나 배수체계와 초기정착시나 가뭄건조시 관수 등이 다소 필요하다.

